

## 청년층의 창업 실태에 관한 연구\*

유홍준<sup>1)</sup> · 김월화<sup>2)</sup>

### 요약

청년 실업률은 2013년 현재 8.0%로 전체실업률(3.3%)의 약 2.5배에 이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 및 각 지자체는 청년 실업의 대안의 하나로 창업을 제시하며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청년층의 창업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층의 창업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첫 번째 중요한 일자리로 자신의 사업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인 ‘자영업자’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약 절반의 응답자가 ‘교육 서비스업’을 창업하였고 ‘높은 소득을 위해서’ 또는 ‘자아실현을 위하여’ 자영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을 위한 정보는 공공기관 이용을 통해 얻기보다는 혼자 얻거나 가족, 친지, 친구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5명 중 4명은 종업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자영업자였다. 현재의 일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기간은 약 3달이며 자금을 투자한 경우 평균 창업비용은 약 4,000만원이었다. 월 평균 매출액은 635만원이며 이 중 30%인 190만원이 월 평균 실소득이었다. 현재의 일(직업)이 첫 번째 중요한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7명이 평생 할 일(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분석결과에 나타난 청년 창업의 또 다른 특징은 사업을 운영 중인 청년층의 절반 정도가 ‘교육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이들 중 대부분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월평균 실소득은 6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있어 왜 창업하는 청년의 수가 적으며 청년창업 현황 역시 열악한지를 유추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의 수행과 동시에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사업가 정신의 함양창업 및 교육을 통한 창업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I. 서론

2014년 연초부터 한국의 고용시장에서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뉴스는 ‘청년 실업’에 관한 이슈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8.0%로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3A2033331).

1)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

1년 전보다 0.5%포인트 높아졌으며 2011년과 2012년 각각 7.6%와 7.5%에서 지난해 8%에 진입하여 청년층 실업률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체실업률이 3.3%대 초반인 것과 비교하여 보면 3배에 근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각 언론들은 ‘청년 고용률 사상 최저로 떨어져…IMF 때보다 낮아(한겨레, 20140115)’, ‘청년 고용률 최악(MBN뉴스, 20140116)’, ‘청년 취업률 최악, 매일신문 20140116’ 나아가 ‘청년층 고용쇼크(한국경제TV, 20140116)’라는 제목으로 청년실업률의 심각성을 전했다.

청년층의 실업률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럼에도 올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심해지지만 청년층은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고, 대기업은 올해 채용을 줄일 예정이라고 한다. 대한상공회의소(20140116)가 500대 기업의 올해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정부는 청년 고용 문제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청년고용작업반(TF)을 가동하여 향후 ‘스펙 초월 채용 문화 확산’, ‘청년 창업 지원’, ‘해외 취업 지원’ 등을 통해 경기 개선 흐름이 청년 고용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하였다(뉴시스, 20140116).

정부는 청년 실업의 대안으로 창업을 제안하고(고용노동부, 2010; 한나라당 정책위·관계부처합동, 2011) 청년층을 위한 자금지원제도를 운영하며 창업사관학교 운영 및 창업선도대학 선정과 같은 창업교육 및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청년창업센터의 운영 및 자금지원사업을 수행하며 각 대학교에서는 창업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은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양현봉·박종복, 2011a, 2011b; 김용성, 2014 등). 직장에 취업하는 대신 창업으로 직업을 갖는다는 의미로 창직(創職)이라는 용어가 등장한지도 벌써 10여년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창업시장은 녹록치 않다. 한국의 자영업 취업자 비중은 32.8%로 OECD 평균인 16.0%의 두 배가 넘고, 창업자의 20%가 1년 이내 폐업하고 50%가 2년 이내 폐업한다(국세청, 각년도 국세통계연보)

이에 본 연구진은 우리나라 청년층의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있어 창업한 사람들의 창업 및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진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청년층의 실업의 대안으로, 청년층의 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층이 창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창업을 해야 한다거나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준비된 창업을 통해 성공창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청년층의 창업 실태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이다.

## II.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에서 창업과 진행된 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관련되어, 자영업 선택이나 그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 또는 창업교육 및 정부지원 등과 관련된 주제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경우 소상공인진흥원과 같은 전문적인 지원·연구기관이 있고 창업학회와 같은 전문학회에서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수의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청년층의 창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많지 않으며, 청년층에 관한 연구라 하더라도 전체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정부의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송종호, 2012 등)이나 각 지자체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중 청년층(김종하, 2009 등) 또는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청년 창업 프로그램 창업자들(문수영, 2011; 김재형, 2012; 송은실, 2011)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청년 창업’과 관련된 연구 주제로는 창업/기업 성과(김종하, 2009; 송은실, 2011; 김재형, 2012; 안태욱, 2012; 전인오, 2012), 청년 창업활성화 방안(고용노동부, 2010; 김영일, 2011; 양현봉·박종복, 2011a, 2011b; 박재환·박명수·김대엽, 2012; 이지윤, 2011; 노규성·강현직, 2012), 창업의지(이호재, 2010; 김정옥, 2012) 및 성공확신(송종호, 2012) 등에 대한 연구로 구분된다.

이 중 청년창업에 대한 몇몇 연구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창업특성이나 청년창업지원시스템 및 창업가정신을 그 영향요인으로 정한 것들이 있다. 청년창업자의 창업특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는 김종하(2009)는 서울지역 20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배경적 특성(성별, 교육수준, 업종경험, 창업경험)과 심리적 특성(성취욕구, 통제위치, 위험감수성, 모호성 인내력), 창업전략특성(사업계획, 기능적·기술적 능력, 고객 지향성, 관리 능력)이 성과인 매출액 증가율과 순이익 증가율 그리고 사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성별 및 교육수준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각각 사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분한 창업 준비는 청년창업기업의 성과를 높인다고 제안하고 있다.

송은실(2011)은 2010년, 2011년에 경상북도 청년창업육성사업을 통해 창업지원을 받은 만18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창업전략특성(사업계획, 기능적·기술적 능력, 관리능력), 지원정책(창업공간지원, 창업교육지원, 창업지원금지원, 홍보·마케팅지원, 멘토지원)이 기업성과(매출액증가율, 고용인원증가율, 신뢰성 향상, 이미지 제고)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 지원정책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만족도는 기업성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청년창업자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기업성과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청년창업 지원정책에 있어 사업성 및 사업계획서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지윤(2011)은 청년창업 지원 사업 추진의 문제점으로 체계적인 정보관리의 부족, 재창업의

어려움, 컨설팅 미흡, 창업교육의 미흡, 창업보육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내외 창업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청년창업을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시뮬레이션 학습과 학점교류 및 정규교과과정의 편입,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창업 강연 확대 및 포럼과 경진대회의 활성화, 창업보육센터의 보완, 산학융합단지 조성, 창업동아리의 활성화,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려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창업의지와 관련된 연구로서 김정옥(2012)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위험감수, 혁신성, 개인역량)과 사회문화적 특성(사회적 위상, 사회적 인식, 창업문화) 그리고 경력지향성(안정지향성, 자율지향성, 기술지향성, 관리지향성, 사업지향성)과 창업 지원 정도가 창업의지와 창업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창업의지에는 혁신성과 사회적 위상과 사회적 인식 그리고 사업지향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창업만족에는 성취욕구와 사회적 인식, 사업지향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지원제도는 창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창업교육과 사업아이템 선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청년 창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2007년 전국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와 유홍준·김월화(2013)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중 유홍준·김월화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대졸자들의 학교에서 창직으로의 이행은 2~3%에 불과하여 청년층의 창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아직은 미미하다고 하였다. 세부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창직자들이 더 많은 소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창업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이 이와 같은 경제적 이유로 창직한 비율이 높았다.
- 창직자들의 약 2/3가 창업을 위한 활동을 하였고 창업 준비 기간은 약 5개월 2주 정도이다.
- 창직과 관련된 정보를 얻은 주된 방법은 친구, 선후배 등의 지인이 43.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 또는 친척이 17.4%, 인터넷이 16.3%로 창직자의 2명 중 1명은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창업정보를 획득하였다.
- 사업형태는 혼자 창업한 비율이 48.2%로 가장 높으며 사업자 등록없이 과외나 레슨 등으로 혼자 일하는 비중이 31.4%이다.
- 대학졸업자 중 첫 직업으로 창직한 사람들은 평균 7,645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창업자금 조달방법을 보면 본인 또는 가족, 친지로부터 77.8%에 해당하는 5,947만원을 조달하였으며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 비중은 2%인 152만원에 불과하였다.

### Ⅲ. 분석 대상 및 변수

#### 1. 분석 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를 이용하였는데, 해당 자료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교육경험과 진학, 진로, 직업세계로의 이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4년에 중학교 3학년생 2,000명,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생 2,000명,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생 2,000명의 6,000명 표본으로 시작되었다(보호자와 학생의 담임 및 소속 학교의 행정가 조사 제외). 이후 2007년(4차)에 시간에 따른 표본의 특성 변화(일반계고 진학, 전문계고 진학 등)와 표본 탈락 등을 감안하여 중3 코호트 신규패널 1,500명이 추가되었으며, 2010년(7차)에는 남성의 군입대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성별 비교분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보정패널 757명이(2007년 2월 전문대학 졸업한 남성 337명, 2009년 2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남성 420명)이 추가되었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창업 실태를 살펴보는 것으로, 분석대상은 현재 자영업자이다. 본 조사에서는 현재 일자리 여부에 대하여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하여 첫 번째 중요한 일자리부터 세 번째 중요한 일자리까지를 질문하고 있다. 이 중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첫 번째 중요한 일자리로 창업을 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862명이다.

아래의 <표 1>은 조사 차수에 따른 고급별 분석대상자 현황이다. 우선 조사 시작년도인 2004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었으므로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중학교 3학년 코호트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기간인 2차~4차까지 자료는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의 진학률이 99.6%에 이르며<sup>3)</sup>, 해당 기간의 취업자 및 비진학자는 11명, 12명, 11명의 34명으로 이 중 6명만이 첫 번째 일자리로 '취업하여 돈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해당자는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정코호트는 7차년도에 추가된 것이므로 그 이전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교육고용패널 2차~9차의 각 자료에서 현재 첫 번째 일자리로 내 사업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1~5회까지 중복된다. 그러나 다른 차수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종사상 지위가 동일하다고 하여 그것이 동일한 사업체는 아닌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동일한 사업체라고 한다면, 정확한 창업 및 사업운영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중복되는 동일 사업체에 대하여 창업 현황에 대해서는 최초 정보를 이용해야 하며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최종 정보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체 시작일, 지역, 업종이 동일하여 하나의 사업체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창업 현황에 대한 정보가 다름으로써 어떤 차수에 조사된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조사기간이 각 년도의 7월부터 11월인데, 해당 기간에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창업 전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해당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지를 판단

3)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률은 2000년 이후 99.6% 이상, 2010년 이후 99.7%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즉 동일사업체에 대한 중복되는 자료가 실제로 창업과 관련된 정보인지 아니면 창업계획에 대한 정보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진은 ‘현재 일자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예’라고 답하고 ‘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케이스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응답자의 창업 현황(단위: 명)

|             |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9차  | 합계  |
|-------------|----|-----|-----|-----|-----|-----|-----|-----|-----|-----|
| 현재 창업-1번째   | 전체 | 2   | 3   | 39  | 113 | 113 | 192 | 191 | 209 | 862 |
|             | 고  | 2   | 3   | 39  | 33  | 63  | 72  | 73  | 102 | 387 |
|             | 중  | 비해당 | 비해당 | 비해당 | 80  | 50  | 73  | 67  | 58  | 328 |
|             | 보정 | 미조사 | 미조사 | 미조사 | 미조사 | 미조사 | 47  | 51  | 49  | 147 |
| 현재 창업-2,3번째 | 전체 | 0   | 0   | 6   | 18  | 25  | 39  | 39  | 54  | 181 |
|             | 고  | 0   | 0   | 6   | 9   | 14  | 13  | 11  | 27  | 80  |
|             | 중  | 비해당 | 비해당 | 비해당 | 9   | 11  | 9   | 12  | 16  | 57  |
|             | 보정 | 미조사 | 미조사 | 미조사 | 미조사 | 미조사 | 17  | 16  | 11  | 44  |

\* 1차년도에는 각각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의 학업기간이므로 해당 사항 없으며 중학교 코호트의 경우 고등학교 기간 중 첫 번째 일(직업)으로 내 사업을 운영하는 대상자가 없음. 아울러 7차 년도에 보정 코호트를 추가한 것이므로 6차년도 이전에는 조사되지 않음.

아래의 <표 2>는 현재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자영업자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보정패널이 추가된 7차년도 이전에는 남성 취업자보다 여성 취업자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2년제 대학 졸업 이후인 4차년도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후인 6차년도에서 여성의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확연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결과를 보면, 전체 취업자의 92% 이상이 임금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가지 눈에 띄는 점은 고등학교 졸업 후인 2, 3차년도에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98% 이상으로, 고등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은 주로 취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13,962명)의 6.2%인 862명으로 이 중 남성이 60%, 여성이 40%로 남성이 비율이 높았다.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율을 성별로 살펴 보더라도 남성은 7.6%, 여성은 4.8%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창업을 통해 취업하는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자영업자 현황은 서울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인천·경기(21.8%), 부산 등의 경상도(20.9%)에서 높게 나타났다. 해당 조사기간 응답자들의 연령대는 16~26세(자영업자의 경우에는 19~29세)로 90%가 미혼이었다.

<표 2> 응답자 특성(단위: 명, %)

| 조사 차수               |                | 2            | 3            | 4            | 5              | 6              | 7              | 8              | 9              | 전체             |
|---------------------|----------------|--------------|--------------|--------------|----------------|----------------|----------------|----------------|----------------|----------------|
| 전체<br>취업자           | 전체             | 465<br>100%  | 335<br>100%  | 709<br>100%  | 1,758<br>100%  | 1,814<br>100%  | 2,564<br>100%  | 2,897<br>100%  | 3,420<br>100%  | 13,962<br>100% |
|                     | 남자             | 176<br>37.8% | 94<br>28.1%  | 103<br>14.5% | 705<br>40.1%   | 672<br>37.0%   | 1,333<br>52.0% | 1,636<br>56.5% | 1,987<br>58.1% | 6,706<br>48.0% |
|                     | 여자             | 289<br>62.2% | 241<br>71.9% | 606<br>85.5% | 1,053<br>59.9% | 1,142<br>63.0% | 1,231<br>48.0% | 1,261<br>43.5% | 1,433<br>41.9% | 7,256<br>52.0% |
| 임금<br>근로<br>자       | 전체             | 458<br>100%  | 329<br>100%  | 656<br>100%  | 1,608<br>100%  | 1,671<br>100%  | 2,346<br>100%  | 2,673<br>100%  | 3,174<br>100%  | 12,915<br>100% |
|                     | (전체 취업자 대비 %)  | (98.5%)      | (98.2%)      | (92.5%)      | (91.5%)        | (92.1%)        | (91.5%)        | (92.3%)        | (92.8%)        | (92.5%)        |
|                     | 남자             | 171<br>37.3% | 90<br>27.4%  | 88<br>13.4%  | 641<br>39.9%   | 592<br>35.4%   | 1,203<br>51.3% | 1,484<br>55.5% | 1,814<br>57.2% | 6,083<br>47.1% |
| 여자                  | 287<br>62.7%   | 239<br>72.6% | 568<br>86.6% | 967<br>60.1% | 1,079<br>64.6% | 1,143<br>48.7% | 1,189<br>44.5% | 1,360<br>42.8% | 6,832<br>52.9% |                |
| 무급<br>가족<br>종사<br>자 | 전체             | 5<br>100%    | 3<br>100%    | 14<br>100%   | 37<br>100%     | 30<br>100%     | 26<br>100%     | 33<br>100%     | 37<br>100%     | 185<br>100%    |
|                     | 남자             | 3<br>60.0%   | 1<br>33.3%   | 2<br>14.3%   | 18<br>48.6%    | 21<br>70.0%    | 17<br>65.4%    | 24<br>72.7%    | 26<br>70.3%    | 112<br>60.5%   |
|                     | 여자             | 2<br>40.0%   | 2<br>66.7%   | 12<br>85.7%  | 19<br>51.4%    | 9<br>30.0%     | 9<br>34.6%     | 9<br>27.3%     | 11<br>29.7%    | 73<br>39.5%    |
| 자영<br>업자            | 전체             | 2<br>100%    | 3<br>100%    | 39<br>100%   | 113<br>100%    | 113<br>100%    | 192<br>100%    | 191<br>100%    | 209<br>100%    | 862<br>100%    |
|                     | (전체 취업자 대비 %)  | (0.4%)       | (0.9%)       | (5.5%)       | (6.4%)         | (6.2%)         | (7.5%)         | (6.6%)         | (6.1%)         | (6.2%)         |
|                     | 남자             | 2<br>100%    | 3<br>100%    | 13<br>33.3%  | 46<br>40.7%    | 59<br>52.2%    | 113<br>58.9%   | 128<br>67.0%   | 147<br>70.3%   | 511<br>59.3%   |
| (전체 남성 취업자 대비 %)    | (1.1%)         | (3.2%)       | (12.6%)      | (6.5%)       | (8.8%)         | (8.5%)         | (7.8%)         | (7.4%)         | (7.6%)         |                |
| 여자                  | 0<br>0.0%      | 0<br>0.0%    | 26<br>66.7%  | 67<br>59.3%  | 54<br>47.8%    | 79<br>41.1%    | 63<br>33.0%    | 62<br>29.7%    | 351<br>40.7%   |                |
| (전체 여성 취업자 대비 %)    | (0.0%)         | (0.0%)       | (4.3%)       | (6.4%)       | (4.7%)         | (6.4%)         | (5.0%)         | (4.3%)         | (4.8%)         |                |
| 신규<br>여부            | 기존 패널          | 2<br>100%    | 3<br>100%    | 39<br>100%   | 66<br>58.4%    | 79<br>69.9%    | 98<br>51.0%    | 109<br>57.1%   | 126<br>60.3%   | 522<br>60.6%   |
|                     | 신규 패널          | -            | -            | -            | 47<br>41.6%    | 34<br>30.1%    | 47<br>24.5%    | 31<br>16.2%    | 34<br>16.3%    | 193<br>22.4%   |
|                     | 보정 패널          | -            | -            | -            | -              | -              | 47<br>24.5%    | 51<br>26.7%    | 49<br>23.4%    | 147<br>17.1%   |
| 지역<br>구분<br>*       | 서울             | 1<br>50.0%   | 1<br>33.3%   | 11<br>28.9%  | 50<br>44.2%    | 46<br>41.1%    | 76<br>40.0%    | 76<br>40.0%    | 80<br>38.6%    | 341<br>39.9%   |
|                     | 인천경기           | 0            | 0            | 11<br>28.9%  | 18<br>15.9%    | 27<br>24.1%    | 42<br>22.1%    | 44<br>23.2%    | 44<br>21.3%    | 186<br>21.8%   |
|                     | 대전충북충남         | 0            | 0            | 5<br>13.2%   | 9<br>8.0%      | 7<br>6.3%      | 16<br>8.4%     | 14<br>7.4%     | 21<br>10.1%    | 72<br>8.4%     |
|                     | 부산대구울산<br>경북경남 | 1<br>50.0%   | 2<br>66.7%   | 5<br>13.2%   | 27<br>23.9%    | 25<br>22.3%    | 39<br>20.5%    | 39<br>20.5%    | 41<br>19.8%    | 179<br>20.9%   |
|                     | 광주전북전남         | 0            | 0            | 5<br>13.2%   | 5<br>4.4%      | 5<br>4.5%      | 13<br>6.8%     | 14<br>7.4%     | 13<br>6.3%     | 55<br>6.4%     |
|                     | 강원             | 0            | 0            | 1<br>2.6%    | 4<br>3.5%      | 2<br>1.8%      | 4<br>2.1%      | 3<br>1.6%      | 8<br>3.9%      | 22<br>2.6%     |
| 혼인<br>상태            | 미혼             | -            | 3<br>100%    | 39<br>100%   | 113<br>100%    | 111<br>99.1%   | 176<br>91.7%   | 168<br>88.0%   | 175<br>83.7%   | 785<br>91.4%   |
|                     | 기혼이며<br>배우자 있음 | -            | 0            | 0            | 0              | 1<br>0.9%      | 16<br>8.3%     | 23<br>12.0%    | 34<br>16.3%    | 74<br>8.6%     |

\* 응답자 중 제주도도 없으며 외국의 1케이스는 제외함.

## 2. 분석 변수

한국교육고용패널에 포함된 자영업자 관련 문항은 크게 사업체에 관련된 객관적 측면의 문항과 사업자와 관련된 주관적 측면의 문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는 사업 준비와 관련된 창업 관련 문항, 현재 사업 운영 현황, 사업의 지속여부와 관련된 미래 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후자는 사업자가 느끼는 전공, 기술과 능력 그리고 교육수준과의 적합도 및 업무(일)과 관련된 만족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분석 변수

|                 |       |  |
|-----------------|-------|--|
| 사업체<br>관련<br>항목 | 창업 현황 | 창업동기, 정보습득 경로, 사업체 시작시기, 사업 준비 기간, 사업체 시작 당시 자본금, 자본금 조달 방법 등                |
|                 | 사업 현황 | 업종, 사업체 소재지, 사업체 규모(종업원 수), 사업자등록 여부, 주 평균 근무일수, 주 총 근무시간, 월 평균 매출액, 월 평균 소득 |
|                 | 미래 계획 | 평생 직업으로 생각, (폐업 후)구직 활동 여부 및 이유  |
| 적합도             |       | 전공, 기술과 능력, 교육수준과 일자리의 적합도   |
| 만족도             |       | 업무(일), 근무환경, 근무시간,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소득, 개인의 발전 가능성,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                  |

## IV. 분석 결과 및 해석

### 1. 창업 현황

청년층의 창업현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교육 서비스업’이 4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이 16.5%, ‘숙박 및 음식점업’이 7.2%의 순이다. 이에 청년 창업자의 절반이 ‘교육 서비스업’에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우려되는 점은 조사 차수에 따라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자영업 취업자 비중은 32.8%로 OECD 평균인 16.0%의 두 배가 넘어 그 경쟁이 치열하다. 그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이들 업종은 진입장벽이 낮아 창업하기 쉽지만 대신 폐업율이 높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원(2008)에서 폐업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폐업을 경험한 업종 중 ‘음식업’이 36.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소매업’이 33.1%로 높게 나타났다.

첫 번째 일자리로 자영업을 선택한 주된 동기로는 ‘높은 소득을 위해서’가 38.8%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기타(18.3%)’, ‘자아실현을 위하여(16.9%)’의 순이었다. 조사 차수에 따라서는 ‘자아실현을 위하여’,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생겨서’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반면 ‘조직생활이 싫어서’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사업 동기는 업종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는데, '제조업'의 경우에는 '가업을 계승하기 위해서' 시작한 비율이 높았으며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 '기타' 업종은 '높은 소득을 위해서'의 비율이 높고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은 '자아실현을 위하여'의 비율이 높았다.

사업에 대한 사업 설계 및 지식정보를 주로 어디서 획득했는지에 대해서는 '농·임·어업'은 약 80%가 '부모(가족, 친지)의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도 다른 업종에 비해 '부모(가족, 친지)로부터 정보를 획득'한 비율이 높았다. 한편 '부동산 및 임대업'과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약 40%의 응답자들이 '혼자서' 창업 관련 정보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혼자서(31.5%)', '친구 또는 지인의 지원을 받음(29.7%)', '부모(가족, 친지)의 지원을 받음(21.4%)'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공창업 교육센터에서 창업교육을 받았다는 비율은 1.4%에 불과하였다. (구)소상공인지원센터(현 소상공인지원공단)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 등에서 창업자를 위한 창업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다.

현재의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준비한 기간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약 12.3주로 3달 정도의 사업 준비 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 서비스업', '농·임·어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이 20주인 5달 내외의 기간을 준비한 반면 '부동산 및 임대업'은 1달 반(6.5주), 한편 '교육 서비스업'은 약 2주의 시간으로 매우 짧았다. 조사 차수별로는 4차년도 1.9주, 5차년도 3.9주, 6차년도 6.25주, 7차년도 12.3주, 8차년도 11.8주, 9차년도 17.3주로 점차 길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창업비용의 경우(투자금액 0원이라는 응답을 제외), 평균적으로 약 4,000만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에 따라서는 '농·임·어업'이 7,500만원 정도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sup>4)</sup>은 6,000만원, '제조업'은 5,800만원, '도매 및 소매업'과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이 약 4,000만원의 순이었다. 한편 '사업 서비스업'은 1,000만원, '금융 및 보험업'은 770만원, '교육 서비스업'은 370만원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체 자영업자의 83%가 자기 자본으로 창업을 하였으며 창업시에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비율은 17%(150명/862명)였다.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창업자금의 60%를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기자본금이 70%일 때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창업 현황이 열악함을 유추할 수 있다. 아울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경우, 약 20%(전체 자영업자 중에서는 3%)가 정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았다고 응답하였다.

4) 350,000만원은 이상값으로 간주하여 제외함

<표 4> 업종별 창업 현황

|    | 농업<br>어업   | 제조업        | 도매<br>및<br>소매업 | 숙박<br>및<br>음식<br>점업 | 금융<br>및<br>보험업 | 부동산<br>및<br>임대업 | 사업<br>서비<br>스업 | 교육<br>서비<br>스업 | 오락<br>문화<br>및<br>운동<br>관련<br>서비<br>스업 | 기타<br>공공,<br>수리<br>및<br>개인<br>서비<br>스업 | 기타         | 전체          |
|----|------------|------------|----------------|---------------------|----------------|-----------------|----------------|----------------|---------------------------------------|--|------------|-------------|
| 전체 | 22<br>2.6% | 20<br>2.4% | 140<br>16.5%   | 61<br>7.2%          | 41<br>4.8%     | 18<br>2.1%      | 40<br>4.7%     | 378<br>44.7%   | 41<br>4.8%                            | 31<br>3.7%                             | 54<br>6.4% | 846<br>100% |

사업 동기(단위: 명, %)

|                      |             |            |             |             |             |             |             |              |             |             |             |              |
|----------------------|-------------|------------|-------------|-------------|-------------|-------------|-------------|--------------|-------------|-------------|-------------|--------------|
| 1 자아실현을 위하여          | 1<br>4.5%   | 4<br>21.1% | 36<br>26.1% | 13<br>21.3% | 8<br>20.0%  | 0           | 4<br>10.3%  | 36<br>10.7%  | 14<br>34.1% | 10<br>33.3% | 9<br>16.7%  | 135<br>16.9% |
| 2 좋은 사업<br>아이디어가 생겨서 | 1<br>4.5%   | 1<br>5.3%  | 12<br>8.7%  | 9<br>14.8%  | 0           | 1<br>5.6%   | 8<br>20.5%  | 4<br>1.2%    | 2<br>4.9%   | 3<br>10.0%  | 4<br>7.4%   | 45<br>5.6%   |
| 3 여가를 즐기<br>기 위하여    | 1<br>4.5%   | 2<br>10.5% | 6<br>4.3%   | 2<br>3.3%   | 2<br>5.0%   | 0           | 5<br>12.8%  | 39<br>11.6%  | 4<br>9.8%   | 2<br>6.7%   | 3<br>5.6%   | 66<br>8.3%   |
| 4 조직생활이 싫어서          | 2<br>9.1%   | 1<br>5.3%  | 4<br>2.9%   | 3<br>4.9%   | 0           | 2<br>11.1%  | 2<br>5.1%   | 3<br>0.9%    | 1<br>2.4%   | 2<br>6.7%   | 2<br>3.7%   | 22<br>2.8%   |
| 5 높은 소득을 원해서         | 10<br>45.5% | 2<br>10.5% | 50<br>36.2% | 18<br>29.5% | 21<br>52.5% | 12<br>66.7% | 12<br>30.8% | 149<br>44.3% | 9<br>22.0%  | 5<br>16.7%  | 22<br>40.7% | 310<br>38.8% |
| 6 취업이 안돼서            | 1<br>4.5%   | 0          | 4<br>2.9%   | 3<br>4.9%   | 3<br>7.5%   | 2<br>11.1%  | 2<br>5.1%   | 5<br>1.5%    | 0           | 1<br>3.3%   | 4<br>7.4%   | 25<br>3.1%   |
| 7 가업을 계승하<br>기 위해서   | 5<br>22.7%  | 8<br>42.1% | 15<br>10.9% | 7<br>11.5%  | 1<br>2.5%   | 1<br>5.6%   | 1<br>2.6%   | 0            | 5<br>12.2%  | 0           | 6<br>11.1%  | 49<br>6.1%   |
| 8 기타                 | 1<br>4.5%   | 1<br>5.3%  | 11<br>8.0%  | 6<br>9.8%   | 5<br>12.5%  | 0           | 5<br>12.8%  | 100<br>29.8% | 6<br>14.6%  | 7<br>23.3%  | 4<br>7.4%   | 146<br>18.3% |

$\chi^2=276.709, p<0.001$

창업 정보 획득 경로(단위: 명, %)

|                             |             |            |             |             |             |            |             |              |             |             |             |              |
|-----------------------------|-------------|------------|-------------|-------------|-------------|------------|-------------|--------------|-------------|-------------|-------------|--------------|
| 1 공공창업 교육센터에<br>서 창업 교육을 받음 | 1<br>4.5%   | 0          | 4<br>2.9%   | 2<br>3.3%   | 0           | 0          | 2<br>5.1%   | 0            | 0           | 2<br>6.7%   | 0           | 11<br>1.4%   |
| 2 민간 컨설팅회사에서<br>창업 교육을 받음1) | 0           | 1<br>5.3%  | 1<br>0.7%   | 2<br>3.3%   | 0           | 0          | 1<br>2.6%   | 1<br>0.3%    | 0           | 1<br>3.3%   | 1<br>1.9%   | 8<br>1.0%    |
| 3 자격증 취득<br>과정에서            | 0           | 0          | 0           | 1<br>1.6%   | 3<br>7.5%   | 4<br>22.2% | 2<br>5.1%   | 3<br>0.9%    | 3<br>7.3%   | 2<br>6.7%   | 1<br>1.9%   | 19<br>2.4%   |
| 4 부모(가족, 친지 등)<br>의 지원을 받음  | 17<br>77.3% | 7<br>36.8% | 39<br>28.3% | 15<br>24.6% | 2<br>5.0%   | 4<br>22.2% | 5<br>12.8%  | 54<br>16.1%  | 7<br>17.1%  | 2<br>6.7%   | 19<br>35.2% | 171<br>21.4% |
| 5 친구 또는 지인의<br>지원을 받음       | 0           | 3<br>15.8% | 39<br>28.3% | 18<br>29.5% | 9<br>22.5%  | 1<br>5.6%  | 9<br>23.1%  | 118<br>35.1% | 15<br>36.6% | 10<br>33.3% | 15<br>27.8% | 237<br>29.7% |
| 6 혼자서                       | 3<br>13.6%  | 5<br>26.3% | 39<br>28.3% | 16<br>26.2% | 6<br>15.0%  | 7<br>38.9% | 10<br>25.6% | 132<br>39.3% | 11<br>26.8% | 11<br>36.7% | 11<br>20.4% | 251<br>31.5% |
| 7 소속된 사업체에서<br>교육을 받음2)     | 0           | 2<br>10.5% | 9<br>6.5%   | 2<br>3.3%   | 20<br>50.0% | 2<br>11.1% | 6<br>15.4%  | 4<br>1.2%    | 4<br>9.8%   | 0           | 4<br>7.4%   | 53<br>6.6%   |
| 8 기타                        | 1<br>4.5%   | 1<br>5.3%  | 7<br>5.1%   | 5<br>8.2%   | 0           | 0          | 4<br>10.3%  | 24<br>7.1%   | 1<br>2.4%   | 2<br>6.7%   | 3<br>5.6%   | 48<br>6.0%   |

$\chi^2=320.618, p<0.001$

- 1) 민간 컨설팅회사에는 프랜차이즈 등이 해당함
- 2) 소속된 사업체는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회사가 여기에 해당함

사업 준비 기간

|       |      |      |      |      |      |     |      |     |      |      |      |      |
|-------|------|------|------|------|------|-----|------|-----|------|------|------|------|
| 평균(주) | 21.0 | 15.4 | 17.3 | 21.8 | 15.0 | 6.5 | 21.6 | 1.7 | 19.4 | 19.6 | 22.4 | 12.3 |
| N     | 22   | 19   | 126  | 56   | 39   | 18  | 34   | 247 | 34   | 28   | 44   | 667  |

창업 자금

|        |       |       |       |       |     |       |       |     |       |       |       |       |
|--------|-------|-------|-------|-------|-----|-------|-------|-----|-------|-------|-------|-------|
| 평균(만원) | 7,488 | 5,801 | 4,372 | 6,130 | 769 | 2,925 | 1,199 | 370 | 4,030 | 2,671 | 6,211 | 3,847 |
| N      | 17    | 10    | 97    | 41    | 14  | 14    | 28    | 38  | 23    | 27    | 27    | 336   |

## 2. 사업 운영 현황

### 1) 사업체 현황

<표 5>는 창업하여 운영중인 사업체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사업체의 규모를 종업원 수로 살펴보았다. 응답자의 5명 중 4명은 종업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자영자<sup>5)</sup>이며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평균 4명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명 내외,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 약 3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 서비스업'에 종사자들의 98%는 자영자로 혼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응답자는 5명 중 2명에 불과하였다. 특히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95%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자영자의 비율이 높은 업종에서 미등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근무현황은 대체로 주 5일이나 6일을 일하는 가운데 '농·임·어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이 6일 근무하였다. 한편 '교육 서비스업'의 주 평균 근무일수는 3일이다. 일 평균 근무시간(주 총 근무시간/주 평균 근무일수)을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9.3시간)', '제조업(9.1시간)'과 '도매 및 소매업', '사업 서비스업(8.8시간)'이 9시간 전후로 다른 업종에 비해 노동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매출액은 '제조업(2291.3만원)'과 '숙박 및 음식점업(1737.6만원)', '부동산 및 임대업(1553.8만원)', '도매 및 소매업(1306.7만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월 평균 수입은 '제조업(537.1만원)', '숙박 및 음식점업(372.9만원)', '도매 및 소매업(314.2만원)'이었으며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는 높은 매출액에 비해 월 평균 수입은 176.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 및 보험업'의 매출액은 435.2만원으로 낮은 편이나 수입은 332.9만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수익률은 70%를 넘지만 월 평균 매출액은 86.7만원, 월 평균 소득은 61.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8세대로 불리는 우리나라 청년층의 노동시장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으로 청년층의 창업현황 역시 열악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5) 자영자, 자영업자, 자영업주, 고용주, 소상공인 등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정부기관에서도 어느 기준에 따라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 그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통계청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청 등의 소상공인이다. 자영자는 종사상 지위에 따른 구분이며 소상공인은 사업체 규모에 따른 구분으로 그 기준이 다르며 다음과 같이 개념 정의된다.

○ 자영업주 : 자기 스스로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또는 상점이나 전문적인 직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합한 개념이다.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 :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기업이나 농장 등을 경영하는 자, 또는 상점이나 전문적인 직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 유급종업원을 한 사람 이상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개정 2006.3.23>

(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2. 제1호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표 5> 업종별 사업 현황

|                  | 농림<br>어업    | 제조업         | 도매<br>및<br>소매업 | 숙박<br>및<br>음식<br>점업 | 금융<br>및<br>보험업 | 부동산<br>및<br>임대업 | 사업<br>서비<br>스업 | 교육<br>서비<br>스업 | 오락<br>문화<br>및<br>운동<br>관련<br>서비<br>스업 | 기타<br>공공,<br>수리및<br>개인<br>서비<br>스업 | 기타          | 전체           |
|------------------|-------------|-------------|----------------|---------------------|----------------|-----------------|----------------|----------------|---------------------------------------|------------------------------------|-------------|--------------|
| 사업체 규모(단위: 명, %) |             |             |                |                     |                |                 |                |                |                                       |                                    |             |              |
| 차영자              | 19<br>86.4% | 9<br>45.0%  | 97<br>69.3%    | 25<br>41.0%         | 38<br>92.7%    | 14<br>77.8%     | 27<br>67.5%    | 371<br>98.1%   | 33<br>80.5%                           | 20<br>64.5%                        | 40<br>74.1% | 693<br>81.9% |
| 고용주              | 3<br>13.6%  | 11<br>55.0% | 43<br>30.7%    | 36<br>59.0%         | 3<br>7.3%      | 4<br>22.2%      | 13<br>32.5%    | 7<br>1.9%      | 8<br>19.5%                            | 11<br>35.5%                        | 14<br>25.9% | 153<br>18.1% |
| 전체               | 22<br>100%  | 20<br>100%  | 140<br>100%    | 61<br>100%          | 41<br>100%     | 18<br>100%      | 40<br>100%     | 378<br>100%    | 41<br>100%                            | 31<br>100%                         | 54<br>100%  | 846<br>100%  |

$\chi^2=187.647, p<0.001$

사업자 등록 여부\*

|         |             |             |             |             |             |             |             |              |             |             |             |              |
|---------|-------------|-------------|-------------|-------------|-------------|-------------|-------------|--------------|-------------|-------------|-------------|--------------|
| 사업자 등록  | 8<br>36.4%  | 14<br>77.8% | 91<br>73.4% | 42<br>77.8% | 7<br>17.9%  | 13<br>72.2% | 23<br>60.5% | 11<br>4.9%   | 16<br>42.1% | 17<br>63.0% | 25<br>51.0% | 267<br>40.9% |
| 사업자 미등록 | 14<br>63.6% | 4<br>22.2%  | 33<br>26.6% | 12<br>22.2% | 32<br>82.1% | 5<br>27.8%  | 15<br>39.5% | 215<br>95.1% | 22<br>57.9% | 10<br>37.0% | 24<br>49.0% | 386<br>59.1% |
| 전체      | 22<br>100%  | 18<br>100%  | 124<br>100% | 54<br>100%  | 39<br>100%  | 18<br>100%  | 38<br>100%  | 226<br>100%  | 38<br>100%  | 27<br>100%  | 49<br>100%  | 653<br>100%  |

$\chi^2=245.649, p<0.001$

근무 현황

|                  |              |              |               |              |              |              |              |              |              |              |              |               |
|------------------|--------------|--------------|---------------|--------------|--------------|--------------|--------------|--------------|--------------|--------------|--------------|---------------|
| 주 평균 근무일수<br>(N) | 6.2<br>(22)  | 5.5<br>(20)  | 6.0<br>(139)  | 5.9<br>(61)  | 5.2<br>(40)  | 5.7<br>(18)  | 5.2<br>(40)  | 2.9<br>(378) | 5.0<br>(40)  | 5.8<br>(30)  | 4.9<br>(53)  | 4.4<br>(841)  |
| 주 총 근무시간<br>(N)  | 43.5<br>(20) | 50.1<br>(19) | 52.6<br>(135) | 54.6<br>(61) | 41.1<br>(39) | 46.4<br>(17) | 45.2<br>(39) | 9.1<br>(378) | 35.2<br>(40) | 46.0<br>(31) | 38.0<br>(53) | 29.7<br>(832) |
| 일 평균 근무시간        | 7.0          | 9.1          | 8.8           | 9.3          | 7.9          | 8.1          | 8.8          | 3.1          | 7.0          | 7.9          | 7.7          | 6.7           |

매출 및 소득 현황(단위: 만원)

|                 |               |                |                 |                |               |                |               |               |               |               |               |                |
|-----------------|---------------|----------------|-----------------|----------------|---------------|----------------|---------------|---------------|---------------|---------------|---------------|----------------|
| 월 평균 매출액<br>(N) | 834.1<br>(17) | 2291.3<br>(16) | 1306.7<br>(118) | 1737.6<br>(48) | 435.2<br>(31) | 1553.8<br>(16) | 810.5<br>(37) | 86.7<br>(326) | 498.6<br>(36) | 851.4<br>(28) | 656.5<br>(42) | 635.5<br>(715) |
| 월 평균 소득<br>(N)  | 233.9<br>(18) | 537.1<br>(17)  | 314.2<br>(125)  | 372.9<br>(51)  | 332.9<br>(34) | 176.5<br>(17)  | 240.1<br>(38) | 61.6<br>(371) | 244.2<br>(38) | 249.4<br>(27) | 307.8<br>(48) | 189.7<br>(784) |
| 매출액 중 소득 비율     | 28.0%         | 23.4%          | 24.0%           | 21.5%          | 76.5%         | 11.4%          | 29.6%         | 71.1%         | 49.0%         | 29.3%         | 46.9%         | 29.8%          |

\* 6~9차년도 조사됨

## 2) 적합도 및 만족도 현황

사업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첫 번째 측면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전공과 잘 맞는지(전공일치도)’, ‘현재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능력이 내 수준에 비해 어떠한지(기술·능력적합도)’, ‘현재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수준이 내 수준에 비해 어떠한지(교육적합도)’의 세 문항이다. 이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전공과 잘 맞는다고 생각하며(3.4점/5점), 현재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능력이 내 수준과 비슷하고(3.2점/5점), 현재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수준이 내 수준과 비슷하다(3.2점/5점)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농·임·어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전공 일치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은 상대적으로 낮아 전공 일치도가 보통이었다.

기술·능력적합도와 교육적합도에 대해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현재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능력 및 교육수준이 내 수준보다 약간 낮다고 생각하는 반면 ‘농·임·어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현재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능력 및 교육수준이 내 수준보다 약간 높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대체로 ‘농·임·어업’, ‘사업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전공일치도도 높고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능력이나 교육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의 전공과 잘 맞는 편이지만 일을 하는데 요구되는 기술·능력 및 교육수준은 자신의 수준보다 낮은 편이라고 응답하여 자신의 능력보다 낮은 수준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두 번째 측면은 만족도와 관련된 것으로, 자영업자들은 하고 있는 일(업무)과 관련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항목에 따라서는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3.9점/5점), 근무환경(3.8점/5점), 근무시간(3.8점/5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안정성(3.2점/5점)에 대해서는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전체적으로 일(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3.8점이었다.

업종에 따라서는 ‘농·임·어업’ 종사자들의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경우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 뿐만 아니라 소득에 대한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실제로 월평균 실소득이 높지 않지만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도 다른 업종에 비해 적기 때문에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6> 적합도 및 만족도

|                | 농업<br>어업 | 제조<br>업 | 도매<br>및<br>소매<br>업 | 숙박<br>및<br>음식<br>점업 | 금융<br>및<br>보험<br>업 | 부동<br>산<br>및<br>임대<br>업 | 사업<br>서비<br>스업 | 교육<br>서비<br>스업 | 오락<br>문화<br>및<br>운동<br>관련<br>서비<br>스업 | 기타<br>공공,<br>수리<br>및<br>개인<br>서비<br>스업 | 기타  | 전체  | F             |
|----------------|----------|---------|--------------------|---------------------|--------------------|-------------------------|----------------|----------------|---------------------------------------|--|-----|-----|---------------|
| N              | 22       | 20      | 139                | 61                  | 41                 | 18                      | 39             | 375            | 41                                    | 31                                     | 53  | 840 | -             |
| 적합도            |          |         |                    |                     |                    |                         |                |                |                                       |  |     |     |               |
| 전공일치도          | 4.0      | 3.5     | 3.4                | 2.9                 | 3.0                | 3.4                     | 3.2            | 3.5            | 4.1                                   | 3.6                                    | 3.1 | 3.4 | 59.681**<br>* |
| 기술능력<br>적합도    | 2.7      | 3.1     | 3.0                | 3.3                 | 2.8                | 2.7                     | 2.6            | 3.5            | 2.8                                   | 3.0                                    | 3.0 | 3.2 | 73.992**<br>* |
| 교육적합도          | 2.8      | 3.2     | 3.1                | 3.3                 | 2.8                | 2.9                     | 2.7            | 3.5            | 2.9                                   | 3.2                                    | 2.9 | 3.2 | 62.461**<br>* |
| 만족도            |          |         |                    |                     |                    |                         |                |                |                                       |  |     |     |               |
| 일(업무)          | 3.8      | 4.0     | 3.9                | 3.5                 | 3.7                | 3.4                     | 3.9            | 3.7            | 4.1                                   | 3.7                                    | 3.6 | 3.8 | 15.209**      |
| 근무환경           | 3.6      | 3.6     | 3.9                | 3.7                 | 3.9                | 3.3                     | 3.8            | 4.0            | 3.4                                   | 3.6                                    | 3.6 | 3.8 | 26.528**<br>* |
| 근무시간           | 3.6      | 3.3     | 3.6                | 3.3                 | 3.9                | 3.4                     | 3.8            | 4.0            | 3.7                                   | 3.5                                    | 3.8 | 3.8 | 57.672**<br>* |
| 의사소통 및<br>인간관계 | 3.7      | 3.7     | 3.9                | 3.7                 | 4.0                | 3.6                     | 3.9            | 4.0            | 3.7                                   | 3.6                                    | 3.8 | 3.9 | 11.645        |
| 소득             | 2.8      | 3.6     | 3.5                | 3.4                 | 3.6                | 3.0                     | 3.5            | 3.7            | 3.3                                   | 3.1                                    | 3.7 | 3.6 | 42.735**<br>* |
| 개인의<br>발전가능성   | 3.7      | 3.7     | 3.7                | 3.5                 | 3.9                | 3.7                     | 4.0            | 3.2            | 3.7                                   | 3.6                                    | 3.8 | 3.5 | 56.432**<br>* |
| 안정성            | 3.4      | 3.4     | 3.5                | 3.4                 | 2.8                | 2.9                     | 3.2            | 3.1            | 3.0                                   | 3.4                                    | 3.4 | 3.2 | 33.112**      |

\*\*\* p<0.001 \*\* p<0.01 \* p<0.05

### 3. 미래 계획

마지막으로 현재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영업자들은 현재 일(직업)을 평생직업으로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평생 할 일(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현재 다른 직업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은 아니어서 이들의 80% 이상이 현재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는 이유에 대해 업종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에는 전망이 없어서, ‘금융 및 보험업’은 안정적이지 않아서, ‘사업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전망이 없고 수입이 적어서,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수입이 적고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 원인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 미래 계획

|                             |     | 농업<br>어업    | 제조<br>업     | 도매<br>및<br>소매<br>업 | 숙박<br>및<br>음식<br>점업 | 금융<br>및<br>보험<br>업 | 부동<br>산<br>및<br>임대<br>업 | 사업<br>서비<br>스업 | 교육<br>서비<br>스업 | 오락<br>문화<br>및<br>운동<br>관련<br>서비<br>스업 | 기타<br>공공,<br>수리<br>및<br>개인<br>서비<br>스업 | 기타          | 전체           |
|-----------------------------|-----|-------------|-------------|--------------------|---------------------|--------------------|-------------------------|----------------|----------------|---------------------------------------|--|-------------|--------------|
|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단위: 명, %)* |     |             |             |                    |                     |                    |                         |                |                |                                       |  |             |              |
| 전체                          |     | 22<br>100%  | 19<br>100%  | 138<br>100%        | 61<br>100%          | 40<br>100%         | 17<br>100%              | 40<br>100%     | 375<br>100%    | 41<br>100%                            | 30<br>100%                             | 53<br>100%  | 836<br>100%  |
| 예                           |     | 15<br>68.2% | 11<br>57.9% | 59<br>42.8%        | 24<br>39.3%         | 20<br>50.0%        | 11<br>64.7%             | 11<br>27.5%    | 13<br>3.5%     | 22<br>53.7%                           | 20<br>66.7%                            | 19<br>35.8% | 225<br>26.9% |
| 아니오                         |     | 7<br>31.8%  | 8<br>42.1%  | 79<br>57.2%        | 37<br>60.7%         | 20<br>50.0%        | 6<br>35.3%              | 29<br>72.5%    | 362<br>96.5%   | 19<br>46.3%                           | 10<br>33.3%                            | 34<br>64.2% | 611<br>73.1% |
| 구직<br>여부<br>**              | 아니오 | 7<br>100%   | 8<br>100%   | 58<br>73.4%        | 25<br>67.6%         | 13<br>65.0%        | 6<br>100%               | 25<br>86.2%    | 316<br>87.3%   | 15<br>78.9%                           | 9<br>90.0%                             | 27<br>79.4% | 509<br>83.3% |
|                             | 예   | 0<br>0.0%   | 0<br>0.0%   | 21<br>26.6%        | 12<br>32.4%         | 7<br>35.0%         | 0<br>0.0%               | 4<br>13.8%     | 46<br>12.7%    | 4<br>21.1%                            | 1<br>10.0%                             | 7<br>20.6%  | 102<br>16.7% |

\*  $\chi^2=219.872, p<0.001$  \*\*  $\chi^2=26.437, p<0.05$

## V. 요약 및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청년층의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있어 창업은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적으며 창업 현황 역시 열악함을 알 수 있었다. 창업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공공기관보다는 혼자나 가족, 친지, 친구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고 청년 창업가의 절반 정도가 교육서비스업으로 진출하며 이들 중 대부분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월평균 실소득은 60만원에 불과하다. 현재의 첫 번째 중요한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7명 이상이 현재의 일(직업)을 평생 할 일(직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창업 준비 및 사업 현황이 열악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학교에서부터 창업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제로 본 자료에서는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중 졸업 후 창업을 하겠다는 응답자는 10명 정도에 불과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 수행과 아울러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창업 교육을 통한 창업 준비 및 사업가 정신의 함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조사자료의 목적이 ‘청년층의 교육 경험과 직업세계로의 이행과정을 조사, 분석’하는 것이라고 설문지의 인사말에도 명기되어 있다. 청년창업이 정부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청년층의 학교에서 창업으로의 이행’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창업교육 및 창업마인드 등 창업자 특성에 대한 조사문항이 보완된다면 청년층 창업자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 고용노동부(2010). 청년 창직·창업인턴 성과평가 및 활성화방안 연구.
- 김영일(2011). 유아 / 아동체육 관련 청년창업을 위한 활성화 방안. (경남RHRD)휴먼과워21. 제7호. 경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 김용성(2014).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창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KDI FOCUS 제35호.
- 김재형(2012). 청년창업지원시스템이 창업성파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청년창업1000프로젝트』 참가자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옥(2012). 청년창업자의 창업의지와 창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금오공과대학교 컨설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하(2009). 청년 창업자의 창업특성이 사업성파에 미치는 영향 :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규성·강현직(2012). 청년창업 지원정책 실태와 활성화 방안.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9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문수영(2011). 청년창업가의 창업기회원천 분석 및 기회탐색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서울시 『청년 창업 1000프로젝트』 참가자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환·박명수·김대엽(2012). 창업정책 현황과 창업생태계 관점에서의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경영교육연구. 제27권 제5호 통권 제75호. 한국경영교육학회.
-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진흥원·중소기업연구원(2007). 2007년 전국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
- 소상공인진흥원(2008). 소상공인 폐업 및 재창업사업자 실태조사.
- 송은실(2011). 청년창업자의 창업특성이 기업성파에 미치는 영향 : 경상북도 청년CEO 육성사업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중호(2012). 청년창업 성공확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사례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태욱(2012). 청년창업가의 특성과 창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창업성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현봉·박종복(2011a).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_\_\_\_\_(2011b).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 유홍준·김월화(2013). 청년층의 직업 가치와 창업 선택. 2013 고용패널 학술대회. 한국고용정보원.
- 이지운(2011). 청년창업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호재(2010). 취업준비생과 청년창업경영자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인오(2012). 창업지원이 청년창업성파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책연구. 10권 11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한나라당 정책위·관계부처합동(2011). 희망 한국,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 뉴시스(20140116). [종합]청년고용 문제, 3개년 계획 핵심 어젠다로



대한상공회의소(20140116). 2014년 500대 기업 일자리 기상도 조사.  
매일신문(20140116). [사설] 청년 취업률 최악, 헛도는 일자리 정책.  
한겨레(20140115). 청년 고용률 사상 최저로 떨어져…IMF 때보다 낮아  
한국경제TV(20140116). 韓 청년층 ‘고용 쇼크’, 현재 상황과 해결 방안?  
MBN뉴스(20140116). 청년고용률 최악…올 채용 1.5% 줄어.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 통계간행물>간추린통계  
국세청(<http://www.nts.go.kr>). 국세통계연보.  
통계청(<http://kostat.go.kr>). 201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http://www.krivet.re.kr>). 1~9차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

❖ Abstract ❖

A Study on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of the Youth Start-up

Hongjoon Yoo, Worlhwa Kim(Sungkyunkwan University)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s 8.0% that is about two and a half times of the total unemployment rate(3.3%) in 2013 and it is continuously increasing.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conducted various start-up programs for the unemployed youth,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carried out about this topic.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of the youth start-up by analyzing current 'self-employed businessmen' who chose self-employment as a first important job with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KEEP) data.

The results are following as: About half of respondents worked in 'Educational service' and started up the business for the purpose of 'high income' or 'self-realization'. Most of them obtained the start-up information by oneself or from family, relatives and friends rather than from public institutions. 4 of 5 people were employers who operated a business alone without employee. Respondents prepared for three months to start the current job and invested about 40 million won. Monthly average sales was 6.35 million won and monthly average income was 30% of the sales, 1.9 million won. In spite of the first important job, 7 of 10 people did not expect that the current job will become a lifelong job.

Another characteristics of the youth start-up shown in this study are that about half of the youth worked in 'educational service', however most of them did not register business license and earned only 0.6 million won for monthly average income. This study shows why the number of youth employer is small in the transition process from the school to the job world and youth start-up condition is also poor although there are many kinds of supporting policies from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n youth start-up.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the spirit of entrepreneurship and the preparation for start-up through youth start-up education in middle/high school and university as well as the enforcement of substantial support policy is needed.

**Key words:** youth start-up, employer, educational service, entrepreneurship